

동부 실크로드 연구 모든 것 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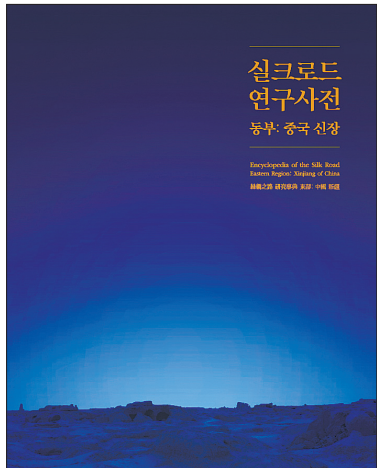
‘실크로드 연구사전’ 발간

申신장 지역 역사·문화 망라

4년간 연구진 30여 명 참여

사진·도판 등 시각자료 풍부

2021년 ‘중앙아시아편’ 예정



중국 투루판 베제크리크 천불동 석굴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에 수록된 도판이다.

동·서문명 교류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 동부 지역 역사,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사전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실크로드 지역인 중국 신장(新疆)의 동부지역에 대한 유적과 유물 연구를 집대성한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을 발간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실크로드 지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료수집·접근이 어

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은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30여 명의 국내 연구진이 참여해 완성했다.

실크로드와 신장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관 표제어 28건과 주요 지역의 유적·유물에 대한 표제어 411건 등 총 439건이 수록됐다.

연구사전은 지리적으로 천산북로와 남로로 나누고, 내용상으로 역사·고고·불교·공예·복

식으로 크게 구분해 서술했다. 이 외에도 고성(故城)·무덤·불교 사원·주거지·암각화 등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수록했다. 각종 사진과 지도 등 시각자료도 풍부하게 삽입하고 참고문헌과 도판 목록, 색인 등을 충실히 담아내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실크로드 연구사전 동부: 중국 신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국내외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기존 서구 중심의 시

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을 중심으로 신장 지역을 바라보고자 국내 관계전문가들이 국내 연구 성과와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을 반영했다.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고대에는 ‘서역(西域)’이라 불렸고, 파미르 고원의 동쪽에 위치한 투르크의 땅이라는 의미로 ‘동투르키스탄(East Turkistan)’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금의 ‘신장’은 새로운 강역(疆域)이라는 뜻으로 18세기 청(淸) 왕조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다. 여러 산맥들과 사막, 초원, 오아시스 도시들로 이루어진 신장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면서 동서 문명의 교류가 이뤄졌고, 건조한 사막 기후로 당시의 유적·유물들이 잘 남아 있다. 이곳은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많은 탐험가, 조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 고대 문화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실크로드 선상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 양상을 밝히고자 2015년부터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성과물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한국어 번역서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2017)>를 비롯해 카자흐스탄의 황금문화와 우리나라 고대 국가와의 교류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초원의 황금문화(2018)>를 펴낸 바 있다. 2021년에는 <실크로드 연구사전 서부: 중앙아시아>도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앙아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문화와 고대 실크로드 분야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자성어 ‘공명지조’

공동체 정신의 필요성 강조해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뜻을 지닌 ‘공명지조(共命之鳥)’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

교수신문은 ‘2019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을 한 교수 1,046명 가운데 가장 많은 347명(33%)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었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목숨(命)을 공유(共)하는 새(鳥)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공동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분열된 한국사회가 결국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생과 화합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교수 설문조사로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이 제시한 35개 가운데 최종 10개를 골라 전국 교수들에게 설문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상월선원 한국불교 중흥 성지될 것”

교구본사 주지, 14~15일 상월선원서 철야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정진

천막결사 통한 화합 발원해

사부대중 기도 행렬 이어져

“저희들은 상월선원 결계대중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고, 사회와 국민의 큰 버팀목이 되어나가도록 몸과 마음이 하나돼 지켜가겠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2월 14~15일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철야정진에는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마곡사 주지)을 비롯해 범주사 주지 정도·수덕사 주지 정묵·은혜사 주지 돈관·금산사 주지 성우·화엄사 주지 덕문·송광사 주지 진화·대흥사 주지 범상·관음사 주지 해운·선운사 주지 경우·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이 참석했다.

일정 상 참석하지 못한 본사는 주지 스님을 대신해 본사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본사 주지 스님들의 정진을 격려하기 위한 내외빈들도 함께 자리했다.

철야정진 입재법회에 앞서 상월선원 총도감 해일 스님(북곡사 주지)은 현재 상월선원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해일 스님은 “상월선원 동안거 1달만에 5만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늘 낮에도 3000명이 선원을 찾아 법회를 열고 기도 정진했다. 새로운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재법회에서는 부처님에게 용맹정진 의지를 알리고 한국불교 중흥과 대한민국 화합을 기원하는 고불문과 발원문이 낭독됐다.

대중을 대표해 고불문을 낭독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혹독한 계절이지만 상월선원의 정진은 더욱 뜨겁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도 절실하다”면서 “국민들이 편안해 화합이 이뤄지고 한국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발원문을 통해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특별한 철야정진을 시작으로, 외호대중들은 부처님 지혜를 증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곳곳에 새로운 불교의 등불이 피어나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원경 스님의 인사말과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동참 소회도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12월 14~15일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이어졌다.

원경 스님은 “분별없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상월선원의 새로운 시도는 불자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종단 위상을 높여 한 단계 도약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숭고한 상월선원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입재법회 후에 박범훈 불교음악원장과 봉은국악합주단이 국악공연 야단법석을 펼쳐 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대중은 발원결사 등 달기와 탑돌이에 이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본격적인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정진을 이어갔다.

한편,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외호대중 기도와 정진 행렬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2월 14일에만 조계종 군종교구와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 1500명이 상월선원 순례를 했으며, 약사암 일심선원, 불암사, 진관사, 영천포교당, 영지사, 동국대교수불자회 등이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을 이어갔다. 15일에도 상주108순례단, 망해암 등에서 상월선원을 순례했다.

12월 17일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12대 집행부 스님들이 상월선원을 찾아 외호에 동참했다.

위례= 신성민 기자



보련기획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아크릴한지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